

- 본문 : 창세기 14장 17~24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

· 본문 읽기

-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저마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정도 가늠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투영시켜 주는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적인 삶을 통해 경건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을 분별하는 ‘존귀한 자’로서의 자세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 도입질문

- * 지금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높이실 때 어느 정도까지 높이셔서 존귀함을 받게 하십니까? (창14:17)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향해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14:18~20) 그 복을 선언하는 방식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3. 아브람이 전쟁후 습득한 전리품과 모든 물질을 대하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창14:21~23)

· 삶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존귀한 자’로서 내가 누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갖춰야 할 영적인 자세를 결단해 봅시다.